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진흙 속 부패를 파헤친 기자들, 머크레이커(Muckraker)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1098/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식품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나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가 기사로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기자가 끈질기게 파헤친 기사 한 편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오늘날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사 보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진흙을 긁는 사람'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은 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머크레이커(Muckraker)'입니다. 머크레이커란 쉽게 말해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 진보주의 시대에 정치 부패, 독점 기업의 횡포,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끈질기게 취재해 폭로한 개혁 성향의 기자와 작가들을 의미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머크레이커라는 이름이 붙은 과정과 그들이 활약한 시대적 배경, 대표적인 폭로 기사와 그 영향, 그리고 오늘날 탐사 보도에 남긴 유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를 파헤친 기자들의 시대 대통령이 붙인 이름 머크레이커라는 이름은 기자들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1) 『천로역정』 속 거름 갈퀴를 든 사람영국 작가 존 버니언(John Bunyan)이 1678년에